해외 유학 알선 미끼 제자 돈까지 떼먹어

'광주 교사 채용 사기' 경찰 신고 피해 사례 보니

기업체 취업·기숙 학원 소개비 등도 가로채

동료에 "부모 치료비 빌려달라" 600만원 꿀꺽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수 억원 떼먹기, 기업체 채용 알선해 준다며 수천만원 '꿀꺽' 하기, 해외 대학 유학 및 기숙사 알아봐 주겠다며 제자 돈 가로채고 병원에 입원한 부모 치료비 빌려달라며 속여 떼 먹기….'

사기꾼들 얘기가 아니다. 광주 D고 교사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의 사례들이다. 이들은 경찰에 "번듯한 직장을 가진, 학교에서도 인정받은 '일 잘하는' 교사가 왕성한 사회 활동으로 형성한 인맥을 내세우며 유창한 말솜씨로 도와주겠다는데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고 한 결같은 진술을 했다.

◇사기꾼보다 더한 교사? =수 억원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D고 교사 김모(40)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 억원을 가로챈 것 외에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중국 대학 진학 및 수도권 기숙 학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제자와 부모들을 속인 사실도 파악했다.

김씨가 근무했던 D고 출신 A군의 경우 중국 칭화대 등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 소재 기숙학원을 알아봐주겠다며 지난 9일 김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가 떼인 뒤 최근 남부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다.

A군 부모는 "학교 선생님이 중국 유학을 돕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믿지 않을 수 있겠냐"면서 "지난 15일 유학에 앞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기숙학원에 등록할 수 없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동료들에게 대기업·자치단체 등에 취업하는 데 도와주겠다며 4000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피해 신고도 받은 상태다.

김씨는 이외 병원에 있는 부모 치료비를 빌려달라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에게 600만원 가량을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김씨를 학교 안팎에서 인정받는 믿음직한 교사로 판단,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D고교 측은 "김씨가 학교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데다, 학생들과도 농구 등을 하며 어울리는 등 학생·동료 교사들에게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 면서 당혹해했다.

◇김 교사 통하면 된다더라 ? 피해 신고 잇따라 = 광주남부경찰은 23일 김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7명이 고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7명이 기업체 취업·정교사 채용·유학 알선 등의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넸다가 받지 못한 금액만 2억18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 신고·상담이 잇따르고 있는 점에 주목, 추가 피해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부경찰은 당장, 광주북부경찰에 정교사 채용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건넸다는 피해 신고를 확인하는 한편,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관련 신고가 다른 수사 기관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남부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해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 뒤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김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마스크로 완전무장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호남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 '나쁨' 단계를 보인 23일. 광주시 서구 유덕동 광주천변 산책로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있다. 실시간 대기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에어코리아는 24일에도 호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으로 노약자들의 경우 장시간 활동 자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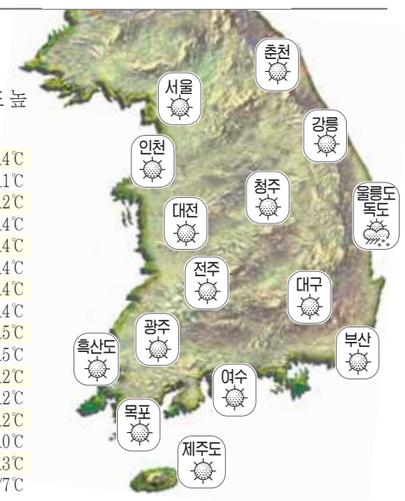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9분 해짐 18시 23분 | 달뜸 02시 25분 달짐 12시 54분

포근한 하루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높겠다.

광 주	맑음	-1/14℃
목 포	맑음	0/11℃
여 수	맑음	3/12℃
나 주	맑음	-5/14℃
완 도	맑음	1/14℃
구 례	맑음	-3/14℃
강 진	맑음	-3/14℃
해 남	맑음	-4/14℃
장 흥	맑음	-4/15℃
순 천	맑음	1/15℃
영 광	맑음	-3/12℃
진 도	맑음	-1/12℃
전 주	맑음	-2/12℃
군 산	맑음	-2/10℃
남 원	맑음	-3/13℃
흑산도	맑음	4/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8:58 21:06	01:22 14:36
여수	04:12 16:27	10:36 22: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1(토)	2(일)
날 씨						
최저/최고	0/16	3/13	6/11	4/10	3/9	1/9

아파트·오피스텔 등 건축때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한다

올 연말부터 시행

올 연말께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권고 수준인 범죄예방 설계를 모든 아파트나 고시원, 오피스텔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계속 권고의 형태로 운영하되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건축물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도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처럼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난치성 희귀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세계 최초 원인 세포군 찾아냈다

화순전남대병원-캐나다 대학 연구진 공동

화순전남대병원과 캐나다 토론토대학 연구진이 난치성 희귀암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특정 변이를 가진 조혈모세포군이 존재함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연구진은 또 백혈병을 예방하고 약물내성을 극복해 치료할 수 있는 유전적 단서를 찾아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 김형준교수와 조혈계질환 유전체연구센터 이일권교수는 지난 20일 캐나다 토론토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이행하는 전단계 조혈모세포의 발견'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2월호에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선정됐다.

양국 연구진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세포와 항암치료 결과가 양호한 환자의 시료에서 공통적으로 'DNMT3A'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목했다.

그 결과 조혈모세포에서 DNMT3A라는 특정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 세포군이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중간 단계의 고리 역할을 해내는 사실을 밝혀냈다.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어떤 원인으로 암세포로 바뀌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서 출혈, 빈혈, 무기력, 면역력 약화 등 인체 내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급성과 만성, 그리고 골수성과 림프성 백혈병으로 구분되며, 발병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생존율이 낮고 재발률도 높다.

이번 연구는 주요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변이의 발생·축적과 백혈병 발생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주노총, 내일 국민파업

5~6월 중 2차 파업 예정

민주노총이 25일 국민파업에 이어 5~6월 중 2차 국민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88체육관에서 개최한 6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투쟁계획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국민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대응투쟁, 5~6월 2차 파업 총궐기, 6월 지방선거 대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10년을 했어도
말 못하는 영어 132시간 후 말하고 듣는 영어로!
"우리말영어로 누구나 미국 원어민발음 술~술~ 말하고 쏙> 쏙> 알아듣는다."

하득희 소장
▶학력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80회)
•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해외 영어강의경력
• 미국 (뉴욕, 펜실베니아,뉴저지,애트란타)
• 영국 런던,호주애들레이드,중국칭따오등에서 강의
▶대학영어강의 경력
• 숭실대학교,국민대학교,총신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등..
▶방송출연
• 미국 엔해턴 기독교방송,극동방송,CBS,CTS등
▶GMLTC(미국 뉴욕정부 공식인가)원장(현)
▶우리말영어연구소소장(현)

- 〈우리말영어〉는 국제음성학협회(IPA)기준에 따라 표기한 유일한 교재입니다.
- 영어 문장 전체를 미국 원어민 연음발음 그대로 우리말로 표기했습니다.
- 우리말영어는 읽기만해도 미국 원어민 연음발음으로 정확하게 교정됩니다.
- 우리말영어로 혼자 132시간 훈련하면 생생한 생활영어를 하게 됩니다.

양날개 영어 / 말과 글 동시 해결!

〈이너췌인쥐〉
비행기 타자마자 생생한 영어 바로 술술!
세계적인 명문 영국 Cambridge대학 출판사에서 만든 회화교재 〈interchange〉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상황영어 교재로서 이책 하나만 마스터하면 영어권에 가서도 따로 랭귀지 스쿨을 안다녀도 됩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1~6학년 교재를 마스터하면 토익 800점, 텝스 700점 가능!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과학, 수학, 언어, 예술분야등 전반을 다룬 공인된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를 우리말영어로 초등학교때 정복하고 나면 중3, 고3, 심지어 대학4년까지 영어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성인들도 이교재만 끝내면 체계적인 영어습득의 틀을 만들 수 있고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공개강의 4시간 참석후 누구나 혼자하는 영어입니다."

광주/부산 특별공개강의
광주 ▶2월 25일(화) 오후1시~5시 / 김대중컨벤션센타 전시동 206호 〈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타 역 하차〉
부산 ▶2월 28일(금) 오후1시~5시 /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층 216호 〈센텀시티역 1번출구와 연결됨〉

우리말영어 무료공개강의
주제 : "말하는 영어" 왜 《우리말영어교재》라야 하는가!
▶ 토요강의 : 3월 1일 (오후 1시~5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 월요강의 : 3월 3일 (오후 1시~5시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찾아오는 길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2번출구에서 100m 오면-횡단보도건너면서 연동교회뒷길로 50m 올라오면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참석 전화접수 : 대표/ 1899-8205〈선착순 좌석배치〉

『우쥴라잌투 츄라이론』
이것이 우리말영어입니다
"저는 중학교시절 미국에서 영어에 우리말로 표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원어민 발음은 우리말로 해야 정확하게 영어를 빨리 배웁니다."

강사/ Jia Sung
FI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S. Fashion Merchandising Management 졸업)
중, 고, 대학교 미국에서 졸업
미국 현지 패션계 활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WE: 우리말영어연구소 / 전국대표 : 1899-8205